나를 향하여

《오 장미여!》에 부쳐

김인선 (스페이스 윌링앤딜링 디렉터)

이수경은 퍼포먼스, 영상, 설치, 조각, 드로잉 등 다양한 매체를 사용하면서 현대미술의 정점에서 그 역량을 보여주고 있는데 비해 회화는 그리 잘 알려져 있지 않다. 2000-2002년도의 〈순간 이동 그림〉Painting for Out of Boby Travel 시리즈가 초기 회화 작업으로 분류될 수도 있지만 이는 공간 설치의 일부로서의 개념이 강한 작업이었다. 2020년 스페이스 윌링앤딜링에서의 개인전《오 장미여!Oh Rose》에는 아직 세상에 보여주지 않았던 인상적인 회화 4점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는 2014년부터 진행해 온 〈전생 역행 그림〉Past Life Regression Painting 시리즈 중 일부이다. 이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제작한 붉은 색 경면주사를 재료로 한 회화 〈불꽃〉Flame시리즈와 강한 연결지점을 찾을 수 있다. 〈전생 역행 그림〉의 붉고 화사하게 너울거리며 화면 전체를 채우는 장미 꽃잎 또한 불꽃 시리즈를 연상시키는데, 이 불꽃들은 부적 제작에 사용하는 경면주사로 그린 붉은 선으로 화면을 채우면서 만들어진다. 이수경은 종이를 바닥에 눕히고 화면 위로 몸을 온전히 평행하게 두는, 엎드린 자세로 화면을 채워나간다. 이는 계획된 밑그림이 따로 없이 작가의 몸이 움직이면서 불꽃 모양의 흔적을 계속 만들어낸다. 반복적인 행위로 그리는 선이 불꽃 모양으로 구현되어 큰 화면을 가득 메운 이 시리즈는 초기 작업부터 외부의 내러티브와 타인의 시선을 소재로 하여 작업했던 태도에서 완전히 자신을 향하고 있는 태도를 드러낸 큰 전환점을 가진 작업으로 보인다.

초기의 이수경의 작업은 특정 대상에 대한 분석과 조사, 각종 데이터를 두고 이들을 조합하여 나름의 완벽한 혼합체를 만들어내곤 하였다. 2000년도 작품인 〈미술인의 제복〉은 작업복으로서 의복의 각 부분마다 가장 효과적이고 실용적인 디자인을 설문 조사하여 그에 따른 결과물을 기반으로 제작하였다. 또한 〈가장 멋진 조각상〉The Very Best Statue 또한 타인들의 시선으로 이루어진 작업이다. 여러 종류의 종교 조각상 중 가장 좋아하는 부위를 선택하게 하여 가장 많은 수의 선택을 받은 요소를 이상적인 것으로 두고 이를 조합하여 모든 종교적 도상을 포함하고 있는 인물을 탄생시켰다. 스스로의 즉흥성과 직관, 자신의 감흥에 따라 재편집하는 행위로 만들어낸, 이수경 작가의 잘 알려진 〈번역된 도자기〉Translated Vase 시리즈조차 온전히 자신을 향해있지 않았다.

사라질뻔한 존재가 다른 장르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다시 생명을 얻게 되는 알고리즘은 〈번역된 도자기〉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작가의 손에서 운명의 변화를 겪게 됨으로써 이 작업의 대상이 나와 다른 존재에 대한 연민에 기반하고 있다. 도공들이 불에 구워 완성된 도자기가 맘에 들지 않아 깨버린 파편들을 모아서 만든 번역된 도자기 시리즈는 엄격한 도공의 방법론이 아닌 이수경의 직관으로 이어 붙인 비정형의 형상이다. 파편과 파편 사이의 이음새는 에폭시로 메우고 24K 금박을 입힌다. 도공에 의해 버려지고 흙으로 갈려 사라질 깨진 도자기의 운명은 이수경의 작품으로 다시 재생되는데, 이는 곧 소멸을 목전에 둔 존재에 대한 연민이며, 이를 향한 구원 행위로 해석된다. 〈매일 드로잉〉Daily Drawing시리즈, 〈불꽃〉, 그리고 〈전생 역행 그림〉 시리즈 등 이수경 작가의 회화가 앞선 설치나 조각 등의 복합 매체와는 또 다르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특히

평면 작업 행위를 통하여 온전히 스스로를 향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수경은 2011년도에 '정가'를 주제로 작업을 한 적이 있었다. 한국 전통 노래인 정가를 부르는 가수가 퍼포먼스를 할 수 있도록 무대 공간을 디자인하였고, 의상, 조명, 프로그램 등을 기획했다. 이 무대 구조물은 아르코 미술관 1층 전시공간에서 구현되었다. 아르코미술관 2층에는 280여 점의 〈매일 드로잉〉 시리즈를 설치했는데, 전체 공간을 감싸는 각이 없이 휘어진 벽을 만들어 이 드로잉들을 벽면을 두른 띠처럼 일렬로 배치하였다. 드로잉과 드로잉 사이의 벽에는 1층의 무대 공간을 미니어쳐로 재현한 듯한 구조의 작은 스피커가 제작되어 벽 안쪽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이는 '스타바트 마테르 Stabat Mater', 즉 마리아의 고통을 표현하는 천주교의 성가곡, 혹은 그레고리오 성가 등을 한국 전통 노래인 정가로 변조하여 부르는 노래이다. 당시 이수경 작가는 이 작품의 제작을 위하여 정가를 비롯하여 여러 종류의 종교음악을 지속해서 들었다. 작업하는 내내 그 음악들로 인하여 반응하는 감각과 감흥을 따라 즉흥적으로 그린 것이다. 이수경의 이 드로잉 시리즈는 몹시도 직관적이라, 작가가 영향받은 외부 환경에 따라 그림의 뉘앙스가 달라지곤 하는데, 2012년은 다양한 종교의 성가들을 끊임없이 흡수하면서 다양한 종교적 도상의 혼종적 이미지를 화면 위에 쏟아냈다.

스페이스 윌링앤딜링에서 온전히 페인팅과 드로잉 등 평면작업으로만 전시를 가진 2020년도 개인전《오 장미여!Oh Rose!》에서도 그는 2019년과 2020년도에 제작한 〈매일 드로잉〉 몇 점을 보여주었다. 2012년도의 드로잉과 비교했을 때 최근까지 그린 드로잉의 도상은 꽤 많은 변화를 드러냈다. 마치 머릿속의 마인드맵처럼 사람과 사람, 동물, 오브제, 이들이 만든 이야기들 등이 동화처럼 펼쳐져 있으며, 좀 더 무의식 속에서 스며 나오는 작가 내부의 자유로운 생각들이 즉흥적 감흥을 폭발시키듯 강하게 드러났다. 다양한 이미지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상적이지 않은 기괴하거나 아름답거나 유머러스한 서사가 이어진다. 작은 화면 속의 서사는 너무나 강렬하고도 다채로워서 들여다볼수록 더 많은 것을 찾아내고 이야기하게 된다. 각 드로잉의 하단의 한켠에는 동그란 원을 채우는 또 다른 드로잉이 존재하는데, 〈매일 드로잉〉 시리즈의 시그니쳐와 같은 행위로서 정신적 균형을 맞추기 위한 '만다라 치료법'으로부터 가지고 온 방법이다. 이는 스스로 정신의 균형을 맞춰나갈 수 있는 일종의 자기 치유적이고 명상적인 행위이다.

이수경은 이처럼 자신의 머리 속으로부터 끄집어내는 도상들을 작업에 즐겨 사용해 왔다. 이런 지점에서 〈전생 역행 그림〉은 다른 시리즈의 평면 작업들과의 긴밀한 맥락을 찾을 수 있다. 작가는 몇 달간 최면 상담가hypnotic therapist를 찾아가서 전생 체험을 겪으며 그림의 소재를 찾는 방법으로서도 이를 활용하였다. 그는 자신의 전생 속으로 들어가서 여러 생에 걸친 다양한 모습을 한 스스로를 경험하고 돌아오곤 했다. 작가의 작업 속에 등장하는 화면을 가득 채우는 화려한 장미 숲은 전생으로 들어가는 관문처럼 전생체험을 시작할 때 늘 통과하는 풍경이었다고 한다. 이수경의 생은 연민과 따뜻한 심성을 가진 인간, 모성애를 가진 사슴, 복수심을 가졌다가 마음을 고쳐먹는 곰, 위험을 감지하고 동물들을 피신시키고 자신은 불에 타버리는 희생하는 삶을 마감하는 전나무, 맑은 영, 바다의 에너지, 부족을 위해 싸우다가 희생된 사내 '투탕클라' 등 다양하다.

작가는 전생의 삶으로서 그려진 화면속의 다채로운 이야기들을 부분 부분 크롭하여 영상 작업으

로 재편집하였다. 영상 속 이야기와 이미지는 〈매일 드로잉〉 화면에 보이는 작가의 내밀한 무의식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시시각각 새롭게 증식하는 이미지들의 얽히고 설킨 이야기를 듣는 것 같다. 이는 〈번역된 도자기〉 시리즈를 위한 도자기 파편을 재구축하는 과정과도 닮았다. 그러고 보면 그가 응시하는 시선이 외부를 향해있건 내부를 향하건, 그 결과물이 드러내고 있는 것은 자신의 모습이다. 어떤 형식의 작업이든 그는 기분에 따라 그림을 그리고, 상황에 따라 그림 속 이미지의 결이 바뀌고, 심지어 건강 상태에 따라 작업 방법이 바뀌곤 한다. 어느 인터뷰에서의 이수경의 주옥같은 말이 생각난다. "제가 미술을 하는 이유는 더 건강하고, 행복하고 예뻐지기 위해서입니다."